

한국의 전통건축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고인돌

朴時翼 / 도봉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by Park, Shi-ik

1. 고인돌문화의 독창성

가. 고인들의 역사적 의의

인류역사상 사자(死者)를 땅에 매장하는 방법으로서 분묘(墳墓)의 형식이 종교의 의식과 더불어 나타나는 일종의 종교 건축형식의 발생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원시분묘는 평지분묘와 동굴분묘가 사용되었고, 부장품에는 석기(石器), 골기(骨器), 식물의 잔물(殘物), 화장품, 농구 등이 있으며, 부부 또는 사용인 등이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이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곳에 따라서는 사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석(巨石)을 괴어 놓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지석묘인 돌멘(Dolmen)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지석묘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지석묘의 수는 적어도 수천 개에 달하는 막대한 숫자이다. 이러한 거석분묘는 우리 원시사회의 문화 가운데 가장 특색있는 유적으로 손꼽힌다. 이제 우리나라 인접지역에 있어서의 지석묘 분포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넘어 요동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수효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그 서쪽으로 열하(熱河) 및 내몽고 지방과 동북만주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일이 없는 것 같으며, 중국 본토도 원래 지석묘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에 산둥성과 절강성(浙江省)의 연해지방에서 몇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그 조사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제2차대전 후에야 비로소 지석묘의 존재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나, 발견지역은 한국에 가까운 구주(九州) 북부지방에 국한되어 그 분포지역으로 보더라도 한국에서 전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형태가 한국의 지석묘와 비교할 수 없이 왜소한 것들이어서 한국 지석묘의 빈약한 모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나, 구조만은 비슷한 면모가 많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성립이 한국에 집중되어 하나의 특수한 지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시사회문화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할 수 있겠다.

극소수의 지석묘는 한반도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도의 Decan 고원, 카스피해의 서안중앙부, 흑해의 동안중앙부, 슈리아의 서남부, 불가리아의 동남부, 이탈리아의 동남부, 덴마크의 북부와 스웨덴의 남부, 잉글랜드의 남부와 아일랜드의 남부, 프랑스의 중서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부, 헝가리의 북부 등 11개 지역을 거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고인들의 중요한 집중지의 하나이며, 고인들이 우리 고유문화의 단면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또한 고인돌 시대의 문제가 해명되는 날에 우리나라의 선사(先史)와 역사(歷史)가 이어지는 다리가 세워질 수 있어서 고인들의 자료적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한국에서 고인들의 분포는 전지역에 걸쳐서 산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황해도 은율에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으로 유명하다. 대동강 유역 평남 용강군 석천산 중턱에는 백 수십 개가 한 지역에 널려져 있고, 황해도 구월산에도 많이 산재하여 있으며, 남해안으로는 순천을 거쳐 해남까지 분포되어 있다.

지석묘는 풍수지리설의 용어로서는 음택(陰宅)에 해당된다. 지석

묘의 건립연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국에서 전래된 풍수지리설의 전래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까닭으로 이 땅의 묘제에 대한 전형적인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묘의 사상은 그 후에 등장하는 풍수지리사상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게 한다.

현존하는 이들 고인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한 승 일연의 <삼국유사정덕간본(三國遺事正德刊本; 1390년)>에 따르면 「昔有桓國」이라 하였는데, 「환(桓)」자는 허신(許愼; B.C. 100년)의 <설문(設文)>에 의하면, 「네 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의 자연석을 덮어놓은 것」을 「환」이라 한다 하였고, 또 「네 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의 자연석을 덮어 놓은 것도 같다.」고 하였으며, 「하나의 큰 자연석을 세워 두는 것도 같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 선조들이 비(碑), 갈(碣)을 세우는 제도는 「환」의 유래이다.」라고 하였으니 「<삼국유사>에 말하는 「昔有桓國」이라는 「환」자는 대석(大石)문화의 의의로서 고대인의 분묘에서 유래한 「대자연석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사람들은 「대자연석」을 돌멘이라 말하며, 한인(漢人)들은 「다이문(多爾門)」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묘는 한국고대 석기시대의 묘지제도의 하나로써 그 유물의 조형적인 면에서도 한국 고건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풍수지리설의 배경적인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자연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제천사상(祭天思想)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황상기씨는 한국의 제천사상에 대하여 「제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제사지낸다는 말로서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는 민족들이 하늘에 대한 염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농업과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하늘에 대한 기대의 염원은 '농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늘에게 매였다'는 사상,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면 하늘에게 비, 바람이 없기를 바라는 염원, 이것이 제천사상이

다. 이러한 문화권을 일석(日夕)문화라 말하며, 서구에서는 Dolmen Culture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즉 제천사상과 대석문화내지 돌멘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석이 현재 한국에는 대단히 많이 남아 있으며, 입석묘(立石墓)라는 말은 「비, 「갈」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角)으로 된 묘석은 「비」라고 말하고, 원으로 된 묘석은 「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들 외국의 거석문화유물과 우리나라 지식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일이나, 한 가지 이곳에 특기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천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수의 지식묘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접지역인 일본이나 중국에도 지식묘의 존재가 보고되어 있고, 더욱이 중국에는 이후로도 더 많은 지식묘가 보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묘의 수효는 미미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식묘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종류의 거석문화유적이 집중된 것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따라서 한국의 고인들을 포함한 원시시대의 거석문화는 한반도의 독특한 문화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식묘의 수에 있어서 수만에 달함은 이것을 뒷받침 한다.

나. 지식묘의 구조

지식묘는 한 사람의 시체를 묻은 개인묘였다. 때로는 그 길이가 9m, 무게가 70ton까지 이르는 거대한 개석(蓋石)을 얹은 지식묘가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개석을 먼 곳에서부터 운반해와야 되었다. 이것은 그 속에 묻힌 사람이 상당한 수의 인간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였음을 말하여 준다. 그의 권력은 또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세습된 듯하다. 그것은 지식묘가 한 곳에 적게는 3~4개, 많게는 수십 개씩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때로는 일직선으로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기도 한데, 이들은 시대를 달리하여 만들어졌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식묘에 묻힌 사람은 권력의 소유자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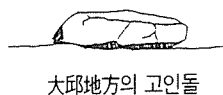


그림 2-1 고인들의 형태



할 수 있겠다.

한국 고인들의 형식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서울지방을 경계로 하여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한다. 북방식은 형체가 크고, 석재형상은 약간 다듬어서 반듯하고 평평한 것을 써서 만들고, 땅 위에 널따란 판석(板石)을 좌우와 후면에다 네 귀가 맞도록 정제된 모양으로 세운다. 그 위에다 특별히 더 넓고 반듯한 판석을 덮은 것으로 그 외형이 비교적 정형으로 생겼다. 황해도 은율의 봉수산(烽燧山) 중턱에 있는 것을 북방식 고인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 개석의 길이가 8.4m 이상이고, 그 위에서 광대가 줄타고 놀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그 넓이와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방식은 매장시설의 주요 부분을 지하에 만들었으며, 그 구조는 변화가 많았다. 그 형체가 작고 석재도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큰 받침돌을 몇 개 밑에 벌려 놓고 그 위에다 개석으로 넓적한 큰 자연석을 눌러 놓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개석을 지석(持石) 없이 그대로 놓은 것이다. 그 외관만으로는 지석묘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따라서 형태가 북방식의 외형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신석기 시대인은 학술적으로 Menhir라 칭하는 선돌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전라남도 지방에는 근래에도 동리어귀에 한둘씩 선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여 윤장섭 교수의 이론은 주로 한국 고인들에 대한 형식의 구별과 그 분포상황 및 그 건설과정에 의하여 비교적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남쪽 전라남도 지방 일대에는 선사시대의 선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순창군의 입석리에는 한 마을에도 입석만이 여러 개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들 입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전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의 사면석주형(四面石柱形)의 세장한 거친 돌기둥 형태가 있는가 하면 매우 잘 치장된 석주의 형태도 볼 수 있다.



치장된 석주를 이곳의 촌로들은 남근석이라고 부르며, 양석(陽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미형(虎尾形)의 동향(東向)한 어귀에는 이 양석이 천하(泉下)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음석(陰石)도 천하에 있었다고 한다. 이 양석은 자연석을 정교하게 인공적으로 다듬어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성인 남자의 생식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 그 몸통부분에도 화분(花盆)의 무늬가 부조되어서 발기한 잘생긴 남근에 문신한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일반적인 선돌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순창에 있는 이러한 치장남근은 모두 원시생활에 있어서 풍요를 기원하거나 득남의 산신(産神)을 봉송하는 습관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신예의 공양에서 치장은 최대의 공경이며, 남근은 이러한 공경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남근숭배사상의 유물로는 경주의 남산 포석정 부근에서도 힘차고 잘생긴 남근이 출토된 바 있으며, 안압지에서는 목제의 남근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군의 해안 사우(祠宇)에서는 해신에게 정성드려 바치는 남근을 보게 되며, 일본에서도 남근을 숭배하여 제의를 거행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근숭배의 사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코카사스 지방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여러지역에 걸쳐서 전해져 내려온 원시생활 또는 종교의 일부로 해석하게 된다.

순창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치장남근을 거석문화의 일부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선돌에 속한 것으로 해석되나, 일반적인 선돌과는 치장한 점이 특이한 관계로 서로 분류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근석은 그 성격상으로 일반적인 지석묘와도 전혀 다른 용도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석묘는 주된 목적이 분묘의 일종으로서 사자(死者)의 신체보호, 영혼의 위로 등 주로 사자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반면에, 이 남근석은 생활의 풍요와 자손의 생산 등 주로 그 목적이 생인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묘와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석묘와 사자를 위하는 시설임에 반하여, 남근석은 묘와는 상대적인 시설물로서 성질을 구별할 필요를 갖게 된다.

다. 한국 고인들의 건립연대

과거에 존재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고고학의 분야에 있어서 각 시대에 대한 연대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고학적 사실에 대한 연대의 측정은 그 당시의 유적과 유물로부터 분석되는 자료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적용되는 고고학적 연대의 측정방법으로는

①「큰 삼나무(Sequoia Giganta)」와 「꺼뜨러기 소나무(Pinus Aristata)」를 재료로 하여, E. Schulman,

C.W.Ferguson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조나학교 나이트 연구소(Lob. of Treering Research)

②H.E.Suess를 중심으로 하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줄라방사성탄소연구소(La Jolla Radiocarbon Lab.)

③E.K.Ralph와 H.N.Michael을 중심으로 하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박물관 고고응용과학연구소(Museum Applied Science Center for Archeology, MASCA) 등의 세연구소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1947년에 본격적인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새로운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 대두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Radiocarbon of C dating)방법과 K.P.Oakely가 절대연대측정방법(Absolute dating) 가운데 그 당시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말한 A1 연대측정방법(A1 dating)보다 진보된 측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연대는 동삼동 1기의 경우 MASCA해석으로 6530B.P. (6530-1950=B.C. 4580년경)로 나타나서 서포항, 동삼동, 신암리 등과 같은 해안지대에는 이 당시에 이미 신석기 문화가 분포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1981년 기준) 양수리 유적으로서 이 연대는 4200B.P.(4200-1950=B.C.2250년경)로 신석기 중기에 해당되며, 상자포리 지석묘의 연대는 2150B.P.(2150-1950=B.C.200년경)로서 가장 후대의 지석묘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석묘의 연대측정결과를 분석하면, 최근 까지 나타난 지석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2250년의 양수리 지석묘이며, 반면에 가장 후대의 지석묘는 B.C.200년의 상자포리 지석묘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위에 나타난 연대는 그동안에 발굴된 지석묘에 의해 조사된 내용인 까닭으로 이보다 훨씬 이전의 지석묘가 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석묘가 분묘의 제도로서 계속 전해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천(적석총, 옹관묘 등)됨에 따라 그 자취가 감춰지기 시작한 연대는 한국의 서북지역의 경우 B.C.4~3세기경, 그리고 남한의 지역에서는 B.C.3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기록으로는 B.C.23세기경부터 B.C.3세기의 분묘로서 해석하게 된다.

지석묘가 한국을 중심으로 건설된 연대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굴된 조사의 기록만으로도 B.C.23세기부터 B.C.3세기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석묘의 발굴된 지석묘의 위치분석 및 지석묘의 발굴현장의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면 지석묘의 위치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즉, 지석묘의 위치는 G.H.Underwood가 「지석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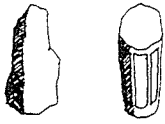
대개 산상이나 산록에 건조되었고, 또 민속에서 토지신의 제단이 평원에 축조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토지신의 제단일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지석묘는 그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산의 능선, 즉 지맥을 찾아서 선정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석묘가 산의 능선 위에 위치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지세를 선정하는 일종의 기준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그 위치를 산의 능선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에 중심이 되는 생룡(生龍)에 대한 관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터득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게 한다. 이것은 지석묘를 신성한 신앙적 장소로 생각하는 그 당시의 의식과 땅이 갖고 있는 신령한 작용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자와 생인 사이의 일체감 등의 여러가지 사상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해석된다.

라. 거석건축(巨石建築)의 종류

지석묘는 지구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그 구조와 용도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재료를 거석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까닭에 이러한 거석으로 이루어진 원시생활의 구조물들은 「거석건축(Megalithic Architecture)」으로 표현한다. 이 거석건축의 구조형태에 따라서 ①Menhir(長石立柱) ②Stone Alignment(列石群碑) ③Stone Circle(單環群石柱) ④Stone Henge(複環群石柱) ⑤Dolmen(支石墓)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2 支石墓와 男根石의 象徴性

	고인돌(支石墓)	선돌(立石 및 男根石)
형 태		
용 도	死者의 墳墓	出生 祈福
음양의 비교	陰	陽
형태적 구분	水平線 구조	垂直線 구조



이들의 형태와 구조 및 특징에 대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①장석입주(長石立柱, Menhir)

선돌이라고 불리우는 장석입주는 1개의 소박한 긴 돌을 초석없이 땅에 꽂아 세운 비이다. 그래서 일명 단석(Monolith)이라고도 부른다.

돌의 크기는 큰 것으로는 길이 20.5m, 지름 2.3m, 무게 330톤 급에서, 작은 것은 길이 3.0m, 지름 0.9m, 무게 16.0톤에 이르는 등 다양다종이다. 이를 건설한 목적은 태양신을 상징하기 위함이었다. 아침, 낮, 저녁 세 때에 제례를 차리고 기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물로 삼았으나, 이곳을 또한 부족의 정기적인 집합장으로 삼기도 했다. 그래서 멘힐의 대소여하는 곧 그들 부족의 역량을 표현하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분포상태는 세계 도처에 보여지나 그 중에서 으뜸가는 곳은 서유럽의 여러곳이며, 한국의 서남해안에 산재하는 멘힐 가운데서도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의 것은 길이 5.0m, 직경 1.6m의 크기이다.

②열석군비(列石群碑, Stone Alignment)

열석군비는 장석을 질서있게 여러 개 결집하여 건립하여 놓은 것을 말하며, 매비(每碑)의 크기는 멘힐에 준한다. 이러한 배치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10열, 5,000여 개가 프랑스 부르타뉴에 있다.

③단환군석주(Stone Circle)

일명 Cromrech라고도 부른다. 멘힐과 열석군비의 서재를 천연 그대로 사용한 것에 반하여, 단환군석주는 길이에 비하여 직경이 훨씬 작도록 가공되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원형평면에 따라서 열석군비를 둘러 세우고, 열석과 열석의 상단에는 석재도리를 연달아 얹었다. 이 원형평면의 직경은 큰 것은 70m~60m, 작은 것은 7.0m~6.0m이다.

건립목적은 신에 대한 의식, 사망자에게의 추도, 출정자에게 축원을 위한 장소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 단환석주군은 부르타뉴에 다수 건립되었다.

④북환군석주(Stone Henge)



일반적으로 석재의 가공정도와 도리의 얹는 수법 등은 단환군석주와 같으나, 북환형으로 계획되었음이 다르다. 북환군석주로서 유명한 것은 영국 남단에 있는 Salisbury 평원의 삼중환형 북환군석주이다. 그 구성은 110m 직경의 외원에 따라 낮은 토루(土壘)를 쌓고, 이 안두리의 정북동쪽 1점에다 독립된 석주 1개, 그 정남 북쪽 2점에다 각각 독립된 석주 1개씩, 도합 3개를 세운 다음, 30.0m 직경의 증원선 위에 4.2m 길이의 석주 30개를 둘러세운다. 다시금 그안에 20.0m 직경의 내원선 위에 보다 더 큰 석주 40개를, 다시 이 내원선 안에는 마제형(馬蹄形)의 타원위에다 5쌍의 석문을 배치했다. 이 타원의 축방향도 정동남쪽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태양의 그림자에 따르는 계절변화의 측정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남부에 있는 북환군석주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원전 1848±275년에 건조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용도에 대한 엄밀한 조사로서 북환군석주를 구성한 돌더미의 오브리 구멍들의 복잡한 배치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북환군석주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겸용한 정확한 달력으로 판명되어서 (1963년)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⑤고인돌(지석묘; Dolmen)

고인돌은 3~4개의 몽땅한 받침돌 위에 1개의 넓고 커다란 뚜껑돌을 얹어서 조그마한 공간을 이루었으며, 그 모양이 탁자와 같다는 데서 dol(탁자)과 men(돌)의 합성어인 「돌멘」이라고도 부른다.










평야와 구릉에다 독립시켜 건립한 고인돌이 본래의 형식이되, 간혹 그 주위에다 단환군석주를 배려한 것도 있다. 따라서 본래 지상에다 건설하지 않고 지중에다 매몰시켜 건립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돌이나 선돌이 원시시대에 건립된 거석건축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앞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 중 현재까지 한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첫째, 지석묘로서 남방식과 북방식이 있으며, 둘째, 선돌로는 자연석입석과 치장석입석, 즉 남근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셋째, 열석군비가 있는데, 한국의 지석묘는 대부분이 수십 개씩 무리를 이루어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배치된 형태가 일정한 직선의 형태로서 단선 또는 복선으로 되어 있어서 열석군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석건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서는 ①Stone Circle과 ②Stonehenge가 있으며, 이들 이외에 지석묘와 특히 관련되는 것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다.

피라미드는 그 구조가 거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된 용도가 왕의 묘인 까닭으로 풍수지리설의 용어로 분석하더라도 음택에 속하며, 그 피라미드의 형태가 인조의 산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리지설과 지석묘

표 2-1 거석건축의 종류

종류 분류	1	2	3	4	5	6	7	8	9
명칭	支石墓(고인돌) Dolmen (南方式)	支石墓(고인돌) Dolmen (北方式)	선돌, 長石立柱 Menhir (Monolith : 單石)	男根石(치장선돌) Menhir	列石群碑 Stone Alignment	單環群石柱 Stone Circle	複環群石柱 Stonehenge	마스타 MASTABA (卓床)	피라미드 Pyramid(Bent Pyramid, Common Pyramid)
형태									
구조의 특징	낮은 책상과 같은 형태	책상과 같은 형태	독립기둥의 구조	男根의 형태	독립기둥의 연속적 배치	원형배치 위에 보설치	2重의 원형배치	책상과 같은 형태	
규모		L B D 뚜껑돌 7M×3M×1.2M 받침돌 3.5M×1.5M	H=2.0M~3M D=2.3M~0.9M W=3.3ton~16ton	D=0.45M H=1.60M	좌와 동	D=70M~60M 평면 D=7M~6M	D ₁ =30M D ₂ =20M	D ₁ =15.3M H=2.5M B=40.8M	D=230M×230M M=146.6M
목적	①墳墓 ②祭壇	①墳墓 ②祭壇	①太陽神 상징 ②아침, 낮, 저녁의 세 차례 祭禮와 禱禮	多産	①太陽神 상징 ②戰鬪의 기념비	①神에게 儀式 ②死者에게 追悼	①祭壇 ②천체관측	古代이집트王墓長軸이南北이 된다.	①古代이집트王墓 ②천체관측소南北의軸을 맞추었다
분포지역	大邱地方 태평양 도서지방, 西印度시리아, 日本九州의別府	강화도 지식묘, 영국, 西유럽, 北유럽, 몽고, 시베리아, 만주, 한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리면 금내리 H=5.3M	全南	프랑스 브르타뉴 (Bretagne)	프랑스 Bretagne	영국남단 SDalisbury	이집트 건립연대 (B.C.3150)	이집트 KHUFU, GIZEH 9B.C.2590 ~B.C.2560년)

의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⑥피라미드(Pyramid)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를 흐르는 나일 강의 상류에 위치한 이집트에 오래된 인류의 유물은 그 당시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지금부터 약 5,000년 전(기원전 30세기)에 세워진 그 당시의 신전, 왕궁, 피라미드, 스피нк스 등의 거석문화유적은 이들 고대인들이 높은 지혜의 소유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피라미드의 구조는 Cheops Khufu의 피라미드 경우를 보더라도 석회석 1~1.5m²(무게 2.4~3.6ton) 크기의 돌을 약 230만 개를 쌓아서 산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 배치는 정확하게 지구의 남북이 축에 일치하며, 형태는 완전한 기하학적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부는 왕의 분묘가 주된 목적으로 건조되었다. 그러므로 이 피라미드는 풍수지리설의 이론적 분석 자료로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피라미드(Pyramid)」라는 말의 어의는 「위대한 태양신」인 「Piramid」의 의미와 「Pir」는 「높음», 「aa」는 「집», 「Piraa」는 「높은 집」의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이라는 문자는 「천자가 군거(君巨)의 하배(賀拜)를 받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여서 「천자」는 하늘, 광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까닭에, 「위대한 태양신」이라는 의미와 「높은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피라미드」라는 용어를 국역하면 「명당」이라

고 말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풍수설에서 말하는 「명당」의 개념과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말에서의 명당이라는 뜻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풍수설에서의 명당은 혈(穴)과 연관짓는다. 혈은 지중의 생기(生氣)를 시신이 받게 하여 고인을 안주케 하여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발복(發福)을 받게 하는데 본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명당개념이 풍수지리학적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고대 이집트인은 현세의 주택을 가우(假寓)로 여기고 사후의 분묘는 영원한 주거로 여기는 까닭에, 주택은 소홀히 건설했으나 분묘와 신전의 건설은 유독 열정적이었다.」는 박학재씨의 이론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이집트인 역시 음택을 매우 중요시하였던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풍수지리설의 생기론적 목적보다 더욱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라미드의 엄청난 규모를 보아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이집트인 역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풍수지리설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상에 나타난 여러가지의 이론을 분석하며, 지식묘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한국에 가장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지식묘를 통하여 그 당시의 사상을 연구할 수 있겠다. 이상에 언급한 지식묘를 포함한 거석건축의 종류와 그 특징을 분류하면 표 2-1 「거석건축의 종류」와 같다. (다음 호에 계속)